

# 독립공원의 조경사적 의의<sup>†</sup>

이유직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 The Significance of Independence Park in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History

Lee, Yoo-Jic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Independence Park in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by examining the idea and goal, master plan and scheme, and meaning and limitation of the park. The construction was announced in July and began with the Independence Arch in the middle of September, 1896. Dr. Philip Jaisohn (Suh Jai-Pil), Counselor of The Privy Office and president of the Independence newspap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ark construction. He formally advised the arrangements and general planning of the park, but he actually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park as much as he designed and superintended the erection of the arch. He had the conception of a productive park for cultivating and experimenting with a variety of trees surrounding the monument.

In terms of the history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Independence Park is important in that it is the first modern city park that was tried independently as part of the modernizing-Seoul project and the only park of which object and scheme were revealed. It also strengthens the roots of Korean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by pushing Korean history of public parks into the prior time to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enriches the contents of Korean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Independence Park is the original realization of a public park because it was constructed with participation and donations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construction and use. In addition, it is the goal and means to inspire the spirit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patriotism in Korean people and lead them to voluntary awakening, enlightenment, and participation.

Independence Park, however, was not constructed according to Dr. Jaisohn's original intent due to the lack of funds and the rudimentary level of landscape construction technology. In addition, the location was too far from downtown and accessibility was very difficult. For these reasons, many do not consider the park as having been constructed. However, this kind of view must be changed. Other parks of the time were not detailed and decorated like typical western parks, but were left as public spaces. In other words, these parks should not be judged by comparing them to western parks. This is the same concept as that of the first parks of modern Korea being called 'park land.' These parks were more natural environments than planned gardens.

*Key Words: Independence Arch, Public Park, Modern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Dr. Philip Jaisohn(Suh Jai-Pil)*

<sup>†</sup>: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Yoo-Jick L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Miryang 627-706, Korea, Tel.: +82-55-350-5404, E-mail: lee@pusan.ac.kr

## I. 서론

근대 조경의 역사는 도시 공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에서 최초의 공공 공원인 버켄헤드 파크가 1847년 개장한 이래, 공원은 산업 도시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대안적 노력의 하나가 되었다. 위생과 건강, 운동과 여가, 모임과 커뮤니티케이션의 공간으로서 공원은 근대 도시의 상징이자 근대 조경의 출발이기도 했다. 특히 1857년 그린스워드 안(案)에서 출발한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아직까지 여전히 도시공원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일본은 1870년대 초반부터 요코하마(橫濱) 외국인 거류지의 야마테(山手)공원, 도쿄의 우에노(上野), 아사쿠사(淺草), 히비야(日比谷) 공원 등을 조성하였으며, 이런 공원들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김원국 등, 2005: 21-35).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도시공원은 1888년 인천 응봉산에 만들어진 각국공원(만국공원, 자유공원)이며, 뒤를 이어 탑골공원이 독립공원이 조성된 것과 같은 해인 1897년에 조성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공원은 1884년 10월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이 체결될 때 계획되었던 곳에 1888년 11월 9일 제물포에 조차해 있던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외교관들이 공동 서명하여 설립된 공원으로서, 당시 각국 조계를 운영했던 신동공사(紳董公司)의 기금을 바탕으로 러시아 토목기사 사바친<sup>1)</sup>이 설계하고 한국인과 청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성되었다<sup>2)</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공원은 근본적으로 우리 영토를 조차한 외국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위해 조성한 반 사유적 공간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탑골공원은 궁내부 대신 이재순과 당시 탁지부 고문이자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의 지원으로 한성부가 조성하였는데(이태진, 2000: 375-376, 428), 독립신문의 내용을 참고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공원의 조성은 1897년이 아니라 1899년 4월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므로 독립공원보다는 나중에 조성된 공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강신용과 장윤환, 2004: 80-94).

우리의 근대 공원의 출발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근대 조경사의 많은 내용들에 일제의 입김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제 이전의 시기에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들이 발견된다. 우리의 자주적 시도들이 망국으로 인해 그 가치가 빛을 바래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근대 공원 도입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한국 근대조경사를 아직도 어렵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제의 그늘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경사를 다

시금 재인식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현대 조경의 주소를 되짚어 보고 미래 조경의 과제와 전망을 탐색하는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독립공원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서울이 전근대적인 모습에 잠들어 있을 때, 조선이 자의반 타의반 개국을 한 뒤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선진의 문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설령 그 가치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힘과 기술적인 지식이 전무했던 시절에 시도된 독립공원은 독립문과 함께 국가의 독립과 근대 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상징이었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독립문과 독립공원, 그리고 독립관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sup>3)</sup>. 하지만 이 공원에 대한 조경사적인 의의를 조명해 보는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sup>4)</sup>. 본고는 1896년 7월에 조성 논의가 발표되어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독립문 건립과 함께 추진되었던 독립공원을 대상으로 이 공원에 담긴 이상과 목표, 구체적인 공원의 기본 구상과 내용, 공원 조성의 실현 여부, 그리고 독립공원의 의의와 한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독립공원이 지닌 조경사적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II. 독립문, 독립공원, 독립관의 조성

독립문, 독립공원, 그리고 독립관의 건설과 관련된 소식은 제일 먼저 건양 원년(1896) 6월 20일자 「독립신문」과 이 신문 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에 실린 독립문 건립 기사에서부터 비롯된다<sup>5)</sup>. 조선이 수백 년간 중국에 종속되어 왔기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은 이를 당연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므로 국가에 경사스런 일이 생겼을 때 높은 문을 만들거나 비를 세우는 외국의 풍습을 참고하여 독립문(Independence Arch)을 세워 조선이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고, 백성들이 나라의 권리와 명예와 영광과 위엄을 더 높이고, 아울러 후손들도 이러한 뜻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독립문이 세워질 부지로서 오랜 기간 중국의 사신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던 굴욕의 장소인 연주문이 있던 자리가 제안되었다<sup>6)</sup>.

이어서 독립문 건립 계획이 보도되고 난 후 열흘쯤 뒤인 7월 2일에는 독립문이 건립될 부지에 '독립공원지(Independence Park)<sup>7)</sup>'를 조성할 계획이 보도되었다(그림 1 참조)<sup>8)</sup>.

일간에 조선을 스랑 하는 사람들이 중추원에 모혀 모화관을 곁쳐 독립 공원디를 만들 일을 의론 할터인디 우리 뜻기에는 이거슨 독기 정부에서만 돈 낼 일이 아니라 아모라도 조선 독립 하는 거슬 조하 하고 빅성의 위성을 위 하고 나라에 영광과 명예를 높히고져 하는 사람들이 출력을 내여 이공원디를 몬드는데 주의에 첫지는 이공원디가 조선이 독립한 표로 몬드는데서라 조선 신민 되야 조선이 독립 된 거슬 경스로 아니 녀이는데스 인국 이민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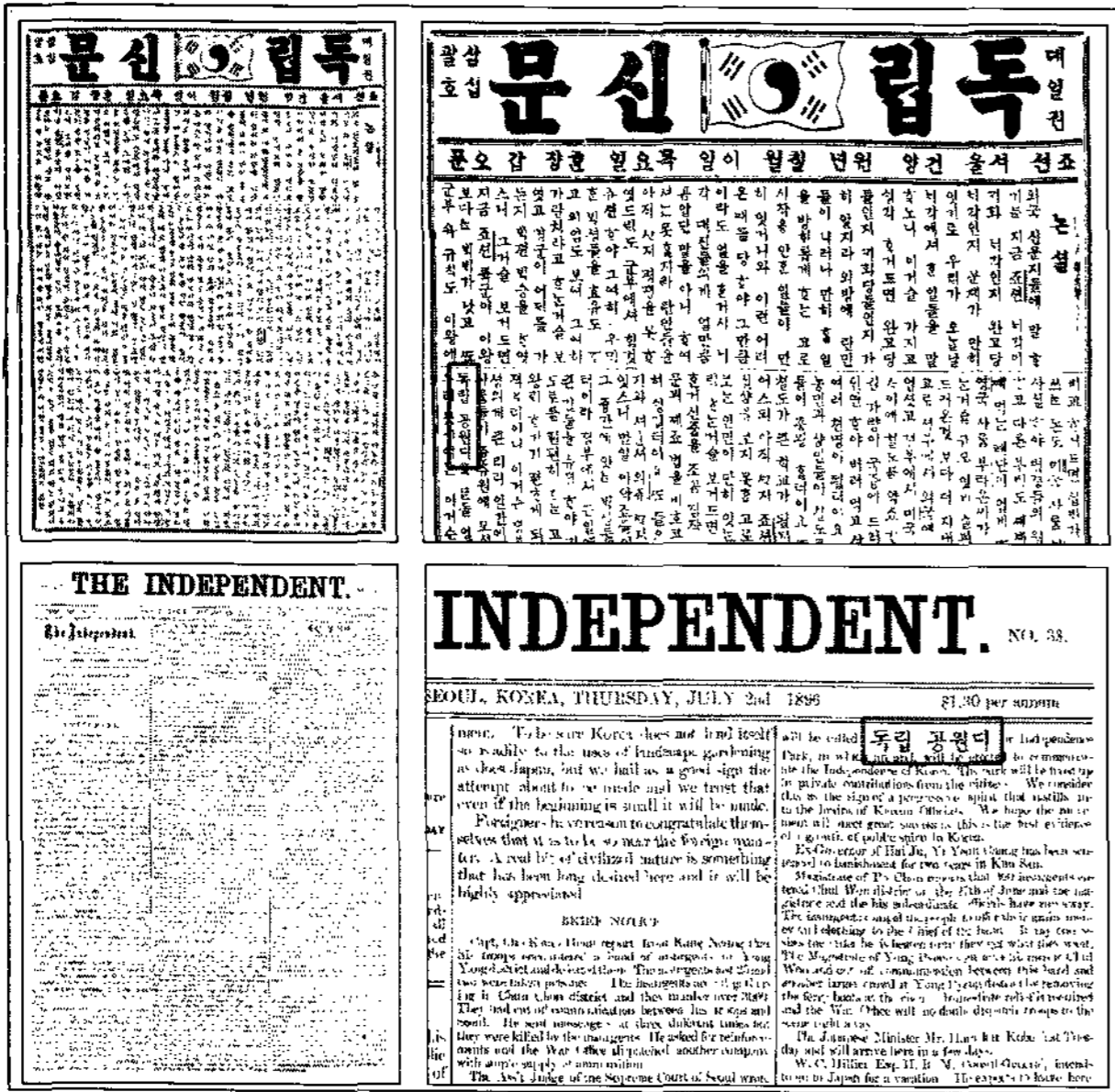


그림 1. 독립공원 조성을 보도한 1896년 7월 2일자 <독립신문>과 같은 날짜 영문판 <The Independent>

는 마음이 엮는 사람이니 그런줄을 알고야 엮지 독립 일에 인연  
 해야 적고 크고 간에 힘을 안 쓰는 자가 잇스리요 이런 회의는  
 누가 식혀 호는거시 아니라 익국 호는 사람들이 외국 물정을 아  
 는고로 즈원 호야 시작 호는 뜻시요 또 거기 공원디가 된 후에는  
 너외 국민이 정헌디 가서 뭍은 기운을 마시고 운동을 호라면 거  
 기 가서 쉴터이니 인민의 위상에 대단히 유조 훈 일이라<sup>9)</sup>.

그리고 같은 날짜 『The Independent』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  
 가 실렸다.

오늘 오후에 서대문 밖 모화관에 공원(public park)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을 논의할 목적으로 중추원의 사무실에서 조선 관리  
 들의 큰 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이 공원은 '독립공원지' 혹은  
 'Independence Park'로 불리게 될 것인데, 이곳에는 조선의 독립  
 을 기념하기 위한 독립문이 세워질 것이다. 이 공원은 시민들의  
 개별적인 기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이 조선인 관리  
 들의 머리 속에 주입된 진보적 정신의 표식이라 여긴다. 우리는  
 이 운동이 조선에서 공공 정신의 발전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로  
 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한다<sup>10)</sup>.

이로써 조선이 독립된 국가임을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는 상  
 징적 공간으로서 독립문과 독립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세  
 상에 알려졌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상징하고, 국민들의 위생을  
 위하여, 나라의 영광과 명예를 드높일 목적으로 모화관 주변에  
 독립공원을 조성하고자한 것이다. 이 공원은 외국의 물정을 잘  
 알고 애국심을 가진 조선의 관리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시작되  
 었으며, 관리들과 백성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될 계획이  
 었다.

7월 2일 오후 외부(the Foreign Office)에서 열린 회의<sup>11)</sup>에  
 서 참석자들은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조성은 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전 인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추진하  
 기로 하고 이 일의 발기인으로 안경수, 이완용, 김가진, 이윤용,  
 김종한, 권재형, 고영희, 민상호, 이채연, 이상재, 현홍택, 김작  
 현, 이근호, 남궁억 등 14인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일을  
 추진할 조직을 구성하여 의장 겸 회계장에 안경수, 위원장에  
 이완용, 위원에는 김가진, 김종한, 민상호, 이채연, 권재형, 현홍  
 택, 이상재, 이근호 등 8인을, 간사원에는 송헌빈, 남궁억, 심의  
 석, 정현철, 팽한주, 오세창, 현제복, 이계필, 박승조, 홍우관 등  
 10명을 선출하였다. 기부금은 대정동 조선은행 안경수 이름으  
 로 모금하기로 하였으며 즉석에서 510원의 기부금(보조금이라  
 불렀다)을 거두었다<sup>12)</sup>. 그리고 앞으로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은 독립신문에 싣고 독립문이 완공되면 목패에 새겨 붙이  
 기로 하였으며, 만약 많은 금액이(약 20,000원정도) 모이게 된  
 다면 크게 석탑을 짓고 이름들을 새겨 기리기로 하였다<sup>13)</sup>.

8월 31일에는 중추원 의관 안경수, 군부대신 이윤용, 협판 민  
 영기, 농상공부 이채연, 법무협판 권재형 등이 모든 간사원 및  
 장공들과 함께 새문 밖 모화관에 나가서 독립문 세울 터와 독  
 립공원을 조성할 땅과 독립관 건축할 곳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  
 시하였다<sup>14)</sup>. 장공들까지 참여한 이날 답사에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도 추정하였으며 많은 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로 말미암아 독립관의 건립은 신축보다는 모화관을 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의 답사를 바탕으로  
 독립관의 보수공사가 먼저 시작되었으며, 9월 16일에는 독립문  
 공사가 시작되었다<sup>15)</sup>. 공사를 시작한지 두 달 정도 지난 1896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독립문의 기초를 놓는 행  
 사가 내외 귀빈과 오, 육천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공  
 원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그림 2 참조)<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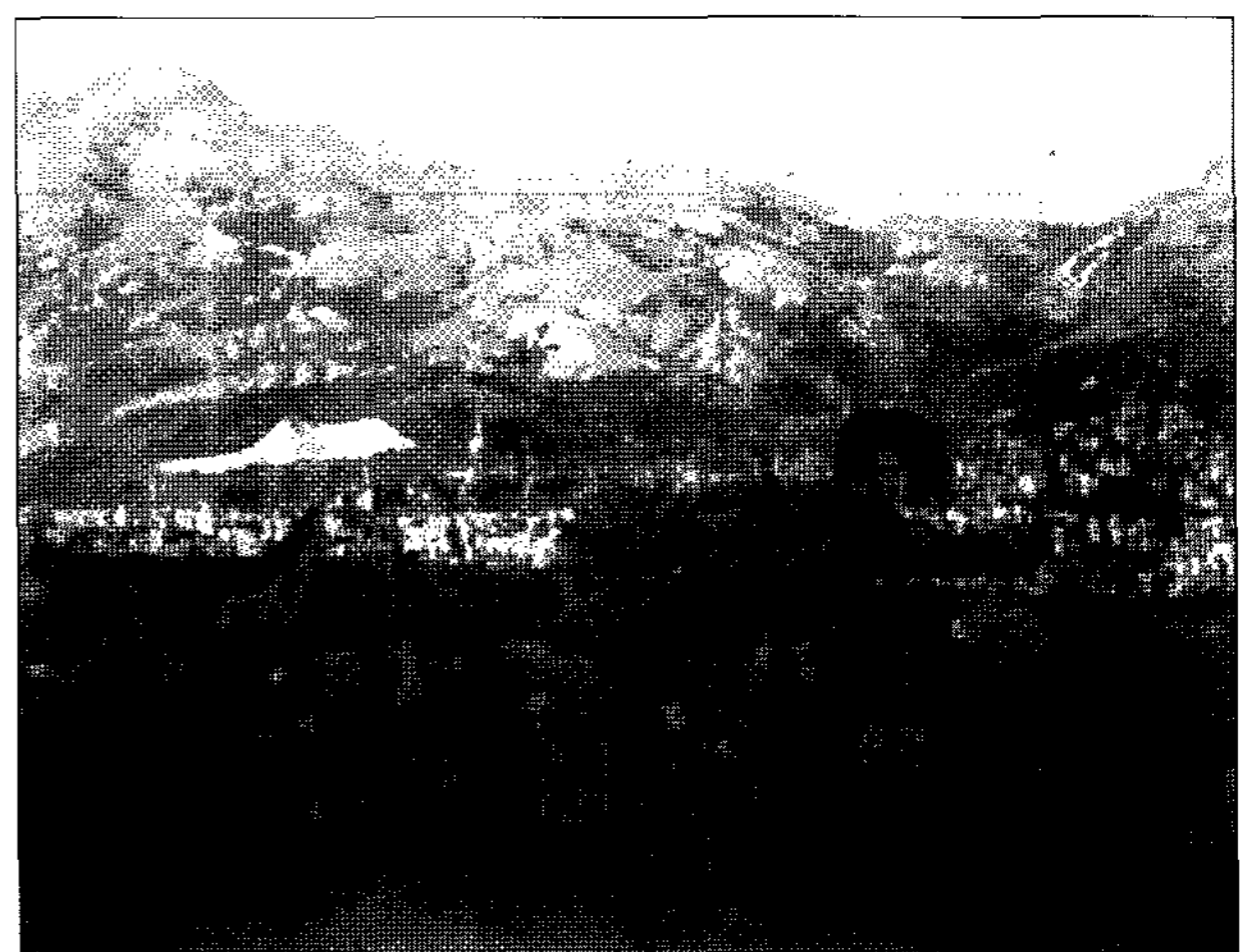


그림 2. 독립문 기공식(1896)  
 자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1-B00440-000

이후의 공사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 정초식이 있었던 시점이 초겨울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듬해 봄까지는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별다른 진척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듬해인 1897년 4월 8일에는 독립관과 독립공원 주변의 땅을 합부로 경작하지 못하게 하고 나무와 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한성부에 의해 고시되었는데<sup>17)</sup>, 아마도 봄이 되어 공사가 재개되면서 계획된 부지에 일반인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5월 23일에는 독립관의 현판식이 있었다. 이 현판은 왕태자가 직접 한글로 쓴 것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행사를 가졌는데, 이를 계기로 독립협회는 매 일요일 오후 3시에 독립관에 모여서 견문을 넓히고 학문에 도움이 되는 강연회를 갖기로 하였다.<sup>18)</sup> 독립문의 완공은 공사가 시작되고 1년 정도가 지난 후인 1897년 11월경에 이루어졌으며 3,825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 III. 독립공원의 계획과 조성

#### 1. 독립공원의 기본구상

독립공원과 관련하여 조경사적으로 중요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누가 어떤 공원을 만들고자 하였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 독립공원에 담긴 우리나라 근대도시 공원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러한 공원의 계획과 설계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독립공원에 대한 어떠한 도면이나 그림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몇몇 기록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추정,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먼저 독립공원의 계획과 설계가 누구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서재필 박사가 공원의 배치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역할을 할 것이다<sup>19)</sup>.”라는 1896년 7월 4일자 「The Independent」의 기사에 미루어 공원조성의 뼈대가 되는 배치(arrangement)와 기본계획(general plan)에 당시 중추원 고문관이자 독립신문 사장이던 서재필(1864-1951)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독립협회의 요청에 따라 독립신문을 발행하던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을 설계하고 건설을 감독했다”는 「The Korean Repository」 1897년 11월호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점이다. 이처럼 서재필은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설계와 공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20)</sup>.

그러면 서재필은 어떤 모습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을까? 1898년에 출간된 「The Korean Repository」 8/9월호에 의하면 서재필은 독립공원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과수와 삼림, 화목류와 다양한 외래 관목들을 재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수목원 같은 성격을 지니면서도 각종 경기시설과 운동 공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공원을 제안

하였다.

서재필 박사는 도시 근처에 과수나 숲, 화목 및 다양한 외국의 관목들을 재배 실험하는 공공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일임을 내각에 제안했다. 이곳에 테니스, 풋볼, 크리켓이나 야구 등과 같은 옥외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관리들이 업무가 끝났을 때 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그는 나아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앉아 시의적절한 주제들을 다룬 유익한 강연이나 연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공원의 한 곳에 둘 것을 제안했다<sup>21)</sup>.

전체적으로 독립공원은 독립문이라는 독립의 의지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목들을 재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생산공원을 지향하면서도 그 속에서 운동과 휴식, 계몽과 집회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1896년 7월 2일자 「The Independent」의 Editorial에는 독립공원의 계획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기사가 실렸다. 영문으로 된 기사의 내용은 대상지의 현황, 공원계획의 주요 내용, 공원의 의의 및 독립공원의 가치,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원에 대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립공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기사이다. 그 첫 부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공원이 조성될 장소는 이상적인 곳은 못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지형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보인다. 모화관과 북경으로 가는 길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이 있으며 이곳은 장차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들이 오늘 이 부지를 살펴보았을 때, 이곳은 돌이 많고 아주 험하며 쓸쓸하게 보였다.

공원이 조성될 장소는 모화관과 북경으로 가는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 돌이 많고 척박하여 공원으로서 이상적인 공간은 못되지만 위치나 지형적인 면에서는 아름다운 공원이 될 만한 훌륭한 곳이라 판단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원의 주요 조경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독립공원이 조성될 부지에 개울의 정비와 다리의 조성, 그리고 도로의 개설과 주요 동선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지형의 조작과 주요 식재계획을 이야기하며, 공원에 들어설 시설물로서 독립문과 군악대석<sup>22)</sup> 등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말끔한 석벽들로 개울은 정비되고 드문드문 그 위로 다리가 놓이며, 개울 양안을 따라서 버드나무가 일렬로 늘어서고, 그 아래로는 잘 만든 도로가 있으며, 그곳으로 마차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개울 양편의 땅은 점차 언덕 쪽으로 높아져서는 부드럽게 언덕으로 이어지고, 이곳저곳에는 낙엽수와 관목들이 식재되며, 산책로와 도로가 구불구불 들락날

락한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들은 틀림없이 명실상부한 근사한 공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주된 관심을 끄는 것은 1894년에 헐어버린 영은문 자리에 세워질 독립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조선의 군대가 가까운 시일 안에 갖추어야 할 군악대들이 이용하게 될 악대석이 들어설 것이다. 만약 서울 부근에 하나라도 좋은 도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들은 마차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며, 현재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레크리에이션 리스트에 또 하나의 형식이 추가될 것이다.

계속해서 공원이란 심미적인 공간이 주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장차 도시의 오아시스가 될 독립공원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공원이란 공간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생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공원은 조선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멋진 대상이 될 것이다. 순수하게 심미적인 목적으로 떼어 놓은, 오직 아름답기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향유되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대지의 한 부분을 보는 것은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게 될 것이다. 단조로운 실익만 좇는 조선인들의 삶 속에서 이 공원은 실로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리가 물을 찾듯 공원을 찾는다. 이점은 마을마다 있으면서 언제나 다소간 풍경식으로 조원이 되어 있는(landscape gardening), 아니면 적어도 가지가 넓게 뻗은 나무 밑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할 만한 장소가 있는 절에 일본인들이 꾸준히 가는데서 아마도 기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이런 장소를 가지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기질의 차이점을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 분명히 조선은 일본만큼 풍경식 조원의 이용에 기꺼이 힘을 쏟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공원을 만들려는 이 시도가 훌륭한 표식이라 환영하며,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다<sup>23)</sup>.

이 기사만을 놓고 보면 이 글이 서재필의 글인지, 그리고 독립공원 조성에 반영되었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조성을 논의할 무렵에 공개적으로 신문에 실린 기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오고 갔던 공원 담론의 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 2. 독립공원의 조성

독립문의 완공은 공사가 시작되고 1년 정도가 지난 후인 1897년 11월경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공사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독립문 공사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다. 독립문 건설은 여러 차례 비용 조달을 독려한 끝에 마무리했지만, 본격적인 독립공원의 조성은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난 후인 1898년 『The Korean Repository』 가을호에 따르면 “기금의 부족으로 말미암

아 공원을 조성하고자하는 계획(scheme)은 당분간 중단되고 있다<sup>24)</sup>.”고 하여 독립공원의 조성은 2년이 지나도록 서재필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독립공원의 조성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이 시작되고 일 년 정도 지난 1897년 7월 15일자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 제16호에 실린 독립협회의 경비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독립문의 건립과 독립관 및 독립공원의 조성을 위한 초기 일 년 동안의 주요 활동 내용과 비용의 지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896년 7월부터 1897년 8월 26일 사이에 54개 항목, 5700여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 돈은 크게 보아 독립문 공사비, 독립관 수리 및 내부시설비, 독립협회 운영비, 독립공원 조성 및 외부 공간 정비비, 행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독립공원 및 외부공간의 정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을 뽑아보면, 3. 독립관 숙직실 수리 및 전, 후정 수리비, 4. 독립관 목책 목재비 외 공사비 선급금, 6. 독립관 전, 후정 공원 조성 및 소나무 식재, 석재 구입비, 8. 독립문 정초식 거행 시 독립관 앞 도로 조성비, 10. 독립문 정초식 거행 시 연설장 수리비, 27. 기원절 경축식 독립공원 화목, 소연(小椽) 500개, 새끼줄, 사다리 등, 42. 독립공원 각종 화훼 재식비, 44. 독립관 우물 석재, 48. 독립관 앞 석축, 잡석 1,000짐, 49. 독립관 목책, 문 앞 길 무너진 곳 안정, 돌계단 조성, 50. 독립공원 잡초 제거, 앞 하천 징검다리 놓는 일군 도급비, 52. 천연정 수리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표 1 참조).

이들 항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독립문 조성공사와 함께 독립관 주변에 관리직원의 숙소를 만들고 앞, 뒤 마당을 수리하였으며, 이곳에 공원(정원)을 만들고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그리고 독립관 주변에 도로를 정비하고 우물을 파고 석재로 마감하였으며, 독립관 앞에 석축을 하고 잡석을 1,000짐 깔았다. 아울러 독립관 주변에 목책을 두르고 문로를 만들며, 길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돌계단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독립공원에 각종 화훼를 재식하였으며, 잡초를 제거하고 천연정을 수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에 소요된 비용을 합해 보면 총 925원 가량으로 전체 지출의 16% 정도가 처음 일 년 동안 독립공원 조성 및 외부 공간 정비에 소요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독립공원의 조성은 서재필의 제안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독립관과 독립문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모습으로 정비하는 수준의 공원 조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독립문과 주변의 경관을 담은 일련의 사진들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점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특히, 그림 3c와 3d를 통해 영은문의 주추와 독립문 사이의 공간 및 독립문 주변이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독립관 쪽으로는 진입도로가 조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독립관 주변에 목책이 있고 진입로에는 문이 세워져 있으며, 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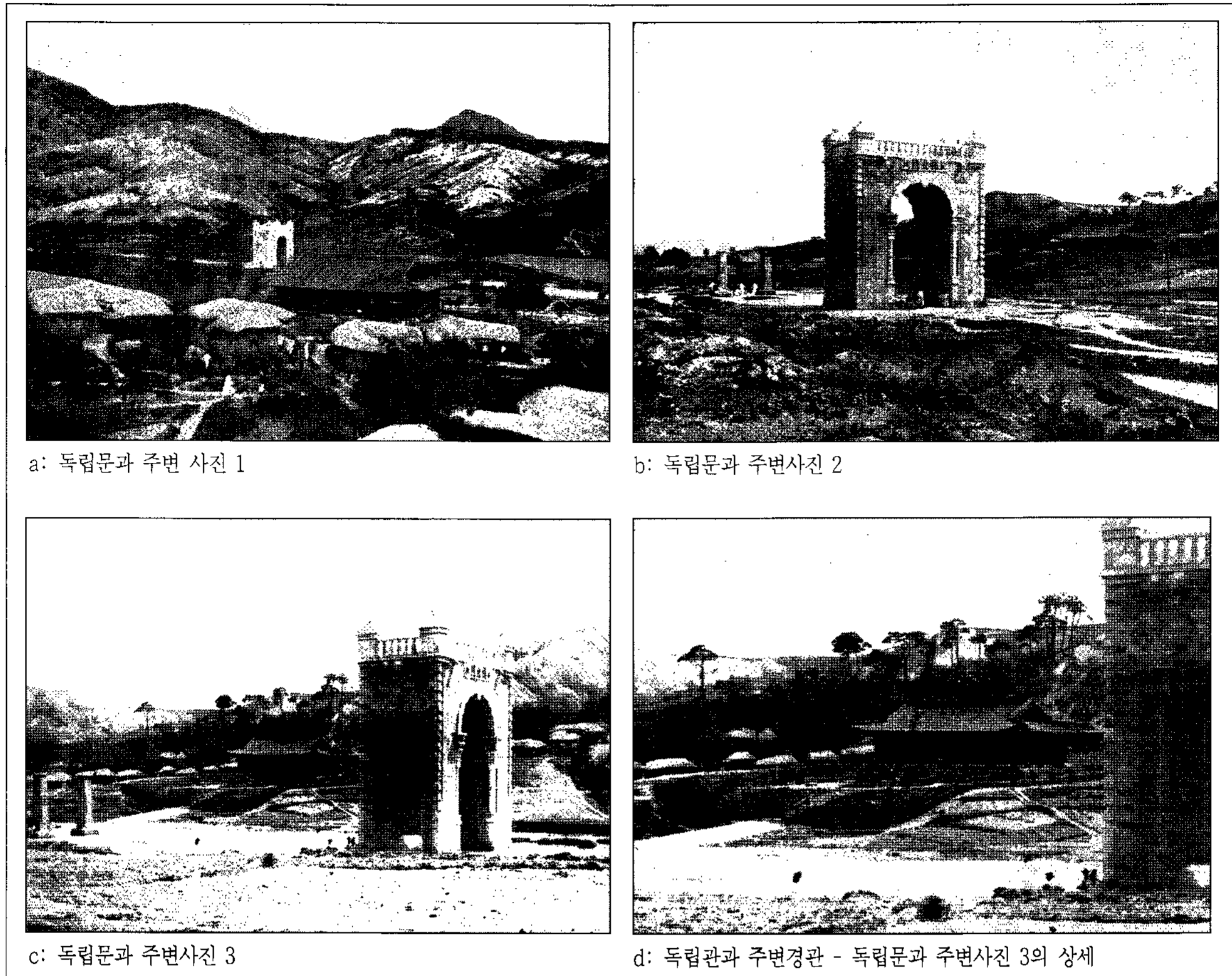


그림 3. 독립문 및 독립관 전경

자료 b: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c: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1-A00799-001

들어서면 경사면에 돌계단이 조성된 것이 보여 전체적으로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에 실린 내용들과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독립공원의 의의와 한계

### 1. 독립공원의 의의

독립공원이 가지는 가장 큰 조경사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근대공원이 도입되던 여명기에 자주적으로 조성을 시도한 최초의 공원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립공원은 공원조성의 발의와 계획의 수립, 건립비용의 모금, 그리고 공원의 이용에 이르기까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독립공원은 근대 도시공원의 이상을 실현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건립 아이디어가 최초에 어떤 연유로 출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록상 독립문은 1896년 6월 20일,

독립공원은 같은 해 7월 2일, 독립관은 9월 3일자 「독립신문」에 그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7월 4일 기사에는 독립문과 독립공원을 조성할 조직과 기금모금이 보도되었다. 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다거나, 혹은 이런 시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등에 대한 논의나 설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을 위한 조직구성과 모금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무렵에 이미 논의의 단계를 지나 조성하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주목할 점은 독립협회의 회칙 제2조에 독립협회가 독립문과 독립공원 건설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칙의 다른 조항 역시 모두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는데<sup>25)</sup>, 이것은 독립협회가 독립문과 독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sup>26)</sup>. 요컨대 독립공원 조성 당시 근대 공원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실천조직으로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것이다<sup>27)</sup>.

독립공원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독립협회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국가의 중심 세력의 공원조성에

표 1. 독립협회 지출내역 (1897년 8월 26일 기준)

항목	독립문 공사비	독립공원 관련 비	독립관 시설비	행사비	협회 운영비	금액
1. 독립문 공사비 3825원 중 선급금	○					2300원
2. 독립관 수리비			○			569원 33전 6리
3. 독립관 숙직실(直處所) 수리 및 전, 후정 수리비		○				125원 76전 8리
4. 독립관 목책 목재비 외 공사비 선급금		○				205원 28전
5. 독립관 현판비			○			72원 53전 2리
6. 독립관 전, 후정 공원 조성 및 소나무 식재, 석재 구입비		○				312원 25전
7. 독립문 정초식 거행시 녹문(綠門) 구입비				○		37원 56전
8. 독립문 정초식 거행시 독립관 앞 도로 조성비		○				13원 46전
9. 독립문 정초식 거행시 신문사 인쇄비(印出), 초대장 및 식순(笏記) 값				○		15원 52전
10. 독립문 정초식 거행시 연설장 수리비		○				44원 22전
11. 독립문 정초식 및 기원절 경축식 식대(洋料理)				○		332원 51전 8리
12. 독립문 정초식 연설장 탑영(榻影) 비				○		6원 10전
13. 독립문 정초식 거행시 독립관에 놓은 의자(交椅) 47개				○		80원
14. 독립관용 대형 유리 걸이등 3개, 대형 사항(沙缸) 1개, 흰 유리병 3개 등			○			16원 72전
15. 독립문 정초식 및 기원절 경축식 궁내부 대형 차일 입대비				○		18원 90전 8리
16. 독립문 정초식 및 기원절 경축식 각처에서 빌려온 의자 8개, 평상, 그릇, 돛자리 등				○		45원 77전 4리
17. 독립관용 유리 컵(曲甬) 40개			○			3원 15전
18. 독립관 대형 옷거리 석구(衣巨里錫鉤) 10개, 각 문에 칠 고리(隻掛鉤), 차일용 고리(單環) 등			○			4원 61전
19. 1896. 7월 - 1897. 8월 사이에 사용한 종이값					○	6원 72전 8리
20. 협회 사무소용 벼루					○	60전
21. 독립문 정초식, 기원절 경축식 및 향용 봉투지 비용					○	6원 76전
22. 협회 사무소용 먹					○	65전 4리
23. 협회 사무소용 붓					○	2원 81전 2리
24. 독립문 정초식 및 기원절 경축식 양목(洋木) 및 양사(洋紗) 비용				○		10원 36전
25. 독립문 정초식, 기원절 경축식 및 1896. 7월부터 1897. 8월까지 하인 등의 요차(饒次)					○	3원 56전
26. 독립문 정초식, 기원절 경축식 및 1896. 7월부터 1897. 8월까지 우편료					○	16원 78전 5리
27. 기원절 경축식 독립공원 화목, 소연(小椽) 500개, 새끼줄, 사다리 등		○				3원 56전
28. 1896. 7월부터 1897. 7월까지 협회 사무위원 월급 (매월 15원)					○	349원 58전
29. 1896. 7월부터 1897. 7월까지 사무소 하인 2명, 독립관직 1명 월급 (하인 5원, 관직 3원)					○	144원 51전 4리
30. 친위 제1연대 제1, 제2, 제5대대 및 경무청 보조원 합 3727명의 이름이 나온 신문비					○	67원
31. 독립문 정초식, 기원절 경축식 샅꾼(雇軍) 비용				○		5원 66전 4리
32. 위원좌목책 장지 및 각 책 장황책사(粧黃冊絲) 등 비용				○		1원 33전 4리
33. 독립관 소용 팽이(廣耳) 10개			○			1원 94전
34. 회보(1 - 11호) 인쇄비					○	487원 50전
35. 협회 사무소 현판, 돛자리, 변물(汙物) 등					○	2원 53전 2리
36. 독립협회기, 대형 탁자, 탁자보					○	14원 53전
37. 지난 겨울부터 이번 봄까지의 석탄비					○	27원 90전
38. 이문사(以文社) 인쇄 보조금 영수증 1천장					○	3원 80전
39. 협회 사무소 대형 함 1개					○	2원 70전
40. 협회 도장 4개					○	2원 80전
41. 인주					○	1원 96전
42. 독립공원 각종 화훼 재식비		○				30원 32전
43. 만국공보지도 판, 타미기 판(打米機板) 등			○			1원 99전
44. 독립관 우물 석재		○				20원
45. 독립관 용 대형 탁자 2개, 긴 의자 10개			○			57원 88전
46. 독립협회 회보 영수증 1천장					○	4원 40전
47. 기원절 경축식 싸리비(柶簾), 석유광(石硫磺) 석유, 두레박(汲水水瓢) 목수 등 비용과 공임				○		2원 65전
48. 독립관 앞 석축, 잡석 1000 길		○				18원
49. 독립관 목책, 문 앞 길 무너진 곳 안정, 돌 계단 조성		○				9원 20전
50. 독립공원 잡초 제거, 앞 하천 징검다리 놓는 일군(진검橋軍) 도급비		○				5원 98전
51. 독립관 대형 누수처 수리비			○			5원 30전
52. 천연정 수리비		○				136원 23전 2리
53. 하인 등의 구창조충주인 매급비 (?)					○	40원
54. 독립관 대형 사기 타구(沙唾口) 6개			○			2원 23전 8리
총계	2,300원	924원 27전	735원 69전 6리	556원 38전 8리	1,187원 11전 5리	5,703원 46전 9리

자료: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7: 12-17.

대한 공감 및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 등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그 정점에는 고종이 있었다. 이 무렵의 여러 사업들은 국왕의 뜻을 받들어 일찍이 초대 주미공사로 활약한 박정양과 그 휘하의 직임을 수행한 이채연, 이상재, 이종하 등이 그때부터 얻은 전문과 지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이태진, 2000: 358-364). 이런 맥락에서 “서재필 박사가 공원의 배치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1896년 7월 4일자 「The Independent」의 기사 또한 이해된다. 즉, 공원의 계획에 서재필의 역할이 컸지만 엄밀히 말하면 당시 서재필은 미국국적을 가진, 조선의 중추원 고문관으로 내방한 미국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재필이 ‘공원의 배치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자문(adviser)’ 역할을 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공원계획의 주체와 내용이 드러난 최초의 공원이라는 점이다. 독립공원의 배치(arrangement)와 기본계획(general plan)의 수립에 서재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The Korean Repository」의 기사를 통하여 계획 초기에 품었던 공원 건립의 뜻과 공원의 공간 구성 등을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인천 각국공원, 인천 일본공원, 화성대공원, 탑골공원, 부산 용두산 공원 등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여타 공원들이 공원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점이다. 「The Korean Repository」와 「The Independent」의 기사는 기록으로 전해지는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 도시공원의 스킴(scheme)이자 담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근대 조경사의 출발이 일제 유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이전으로까지 올라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본 고 3장 1절에서 살펴본 1896년 7월 2일자 「The Independent」의 기사가 서재필의 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까지 독립신문의 사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독립신문의 사장이나 주필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창간부터 서재필, 1898년 5월 12일부터 윤치호, 1899년부터 아펜젤러, 1899년 6월부터 엠벌리였으며, 편집 일은 주시경과 손승용이 초창기부터 참여했고, 선교사 험버트가 영문판 편집일을 초창기 몇 달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다(채백, 2006: 42-109). 따라서 1896년 7월 초,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문판의 기사는 서재필, 혹은 험버트가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독립신문」의 창간과 발행에 서재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서재필 혼자서 기사와 논설을 다 쓰고 했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며, 이런 면에서 험버트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또 궁극적으로 그날의 기사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sup>28)</sup>.

표 2. 주요 공원과 조성연도

공원명	조성 연도	비고
영국 버크헤드 파크	1847년 4월 5일 개장	
미국 센트럴 파크	1857년 그린스워드안 당선 1873년 공식적인 공사종료	
일본 요코하마 야마테 공원(山手公園)	1871년	일본 최초의 공원
일본 동경 우에노(上野), 아사쿠사(淺草), 히비야(日比谷) 공원	1873년	
인천 각국공원	1888년	각국거류지 내에 조성
인천 일본공원(東公園)	1889년 발의 1890년 개설	일본거류지 내에 조성한 신사를 위한 공원 1890년 10월 인천신사 건립 현재는 없음
독립공원	1897년	
화성대공원(和城臺公園)	1897년 3월 17일 토지 임차 7월 공사 착수	일본거류지 남측 남산 산록에 조성한 신사를 위한 공원 1898년 10월 신사 건립(남산태신궁) 1923년 경성신사로 개칭
탑골공원	1899년 4월 이후	
동경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	1903년	
부산 용두산 공원		1899년 신사 준공 1900년 용두산 신사로 개칭
대구 달성공원		1906년 신사완공(대구대신궁) 1913년 대구신사로 개칭
한양공원(일명 남산공원)	1910년 5월 29일 개원	1925년 조선신궁 조영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만약 그 글이 서재필의 것이라면, 서재필의 공원관 혹은 공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갑신정변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서재필이 정원을 돌보고 학비를 번 것(김도태, 1948: 155, 159) 이외에 조경에 대해 특별히 공부할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년 2개월 동안 동경 토야마(戸山) 육군 유년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10여년의 미국 생활을 통하여 도시공원에 대해 당시의 한국인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하였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그가 머물렀던 펜실베이니아와 워싱턴 지역은 뉴욕이나 보스턴 등과 함께 미국의 근대도시의 중심으로서 이곳에서 그는 당시에 조성되었던 도시의 공원들을 많이 접했



표 3. 기부금(보조금) 및 회보판매를 통한 독립협회 월별 수입내역

월	금액	비고
1896년 7월	2,348원	
8월	719원	
9월	334원 70전	
10월	258원 18전	
11월	657원 21전 2리	
12월	399원 50전	
1897년 1월	430원 70전	
2월	208원 10전	
3월	137원 40전	
4월	86원	
	166원 80전	회보 판매 수입
5월	120원 40전	
	77원 79전 2리	회보 판매 수입
6월	40원 90전	
7월	129원 60전	
8월	27원 50전	
	166원 80전	회보 판매 수입
계	6,308원 58전 4리	

자료: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7: 12-17.

을 것이며, 이런 풍부한 경험이 독립공원 조성에 기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독립공원은 공원의 조성 계획에서 이용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민주적 공원이었다. 독립문의 건립과 독립공원의 조성은 그 입안과 계획에서부터 비용의 조달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바탕으로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 된 후 독립협회가 해산되기 전까지 시민들의 민주적 토론과 계몽의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근대적 이상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실천한 프로젝트였다.

독립문 및 독립공원 건설이 “애국하는 사람들이 외국 물정을 아는 까닭에 자원하여 시작<sup>29)</sup>” 했음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다. 독립협회는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보다 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결과물이었다. 물론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데 독립신문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독립공원은 비용의 모금에 있어서도 조선의 전 민중이 참여하는 국가적 이벤트로 전개되었다. 발기인들의 첫날 모금에 이어 답지하기 시작한 성금은 점차 확대되어 왕태자를 비롯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참여하기에 이르러 시작 후 일 년 동안 5,900원 가까운 기부금이 모금되었다(표 3 참조)<sup>30)</sup>.

시민들의 참여는 금전적인 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조성은 시민들의 시조 제작으로 이어져 독립문과 독립공원을 노래하는 시조가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져 수차례 독립신문에 투고되었다<sup>31)</sup>. 이밖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련 행사도 많이 일어났다. 공사를 시작한지 두 달 정도 지난 1896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 독립문 정초식(독립문의 기초를 놓는 행사)은 오, 육천 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벌어졌으며<sup>32)</sup> 이 행사가 끝난 후에는 동네 부인들도 독립관에 모여 연설을 하는 모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sup>33)</sup>. 그리고 1897년 5월 23일에는 독립관 헌판식이 거행되었으며, 8월 13일 기원절(조선의 개국기념일) 날에는 독립관에서 기념행사가 있었다<sup>34)</sup>. 8월 29일부터는 매주 1회씩의 토론회가 독립관에서 개최되었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독립협회의 토론회를 통해 강고한 자주독립(민족주의), 자유민권(민주주의), 자강개혁(자주근대화)의 사상이 시민들에게 보급되었던 것이다(신용하, 2002: 338-339).

독립문 및 독립공원과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시민 참여형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공원 조성에서 촉발된 시민들의 관심은 참여를 통해 극대화 되었다. 독립정신의 고취와 환기라는 시대적 목적은 공원을 통해 진정 구현될 수 있었으며, 이런 일련의 일들은 공원이란 공간 혹은 단어가 민중들 삶의 일상적 장소 혹은 언어로서 자리잡는데 일조하였음에 분명하다 하겠다.

한편, 또 다른 날짜의 「독립신문」 기사는

서울도 모화관에 독립 공원이 된다니 서울 빅성들을 식혀 대신 이하로 가을과 봄에 모화관에 나아가 그근처에 나무를 심으게 들 흘것 갖으면 몇히가 아니되야 서울도 춤 조흔 공원이 싱길터이요 ... 나무 중에 데일 속히 자라고 밋우 요긴한 나무는 빅양목이니 이 나무도 만히 심으고 단풍 나무도 밋우 요긴 하고 전나무 가족 나무 각식 잠목이 쓸디가 만히 잇고 과목도 유조 흘지라 사름 마다 이런 나무 하나씩을 엇어 가지고 일년에 한번씩 와서 심으는거시 그리 힘도 아니 들터이요 몇히 아니 되야 사름마다 그 효험을 볼터이니 서울서 우선 이 일을 시작 히기를 바라노라<sup>35)</sup>.

라고 하였는데, 이 속에서 흥미롭게도 우리는 현재 우리 시대 공원이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참여하는 공원, 만들어 나가는 공원의 실천 덕목과 궤를 같이 하는 생각들도 발견하게 된다.

넷째, 독립문과 독립관, 독립공원의 조성은 고종시대에 추진된 서울을 근대 도시로 변모시키려는 최초의 근대적 도시개조사업의 중요한 한 축이자 대한제국 성립의 대표적 상징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개발은 독립협회와 서재필이 그 중심을 이루지만,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896년부터 시작되어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

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련의 동도서기(東道西器)적 도시 개조 사업, 즉 서울 황성(皇城)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었다(이태진, 2000: 357-386).

고종은 독립협회가 창립될 무렵인 1896년 7월 12일에 탁지부의 입출입을 탁지부 고문관 겸 총세무사인 영국인 맥레비 브라운에게 반드시 결재 받게 하고 도시개조 준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령 제9호를 9월 28일부로 발령하였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한성부 판윤으로 이채연(李采淵)<sup>36)</sup>을 임명하였는데, 이때부터 서울의 도시 가로 개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896년 가을을 지나면서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불결한 도시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독립공원이 조성되었던 시기는 이처럼 이미 서울에서 주요 가로의 정비와 개설, 개천 및 우물의 정비가 함께 진행되고 있던 무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조사업으로 서울의 도로 및 하천(개천)이 정비되었으며, 경운궁, 독립문(1897), 원구단(1897), 황제즉위 40주년 기념비전(1902)과 같은 새로운 중심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독립공원(1897), 경운궁 앞 퍼블릭 파크, 시내의 탑골공원(1899) 등과 같은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전기(1900), 수도, 전차(1899), 철도 등의 새로운 문명시설이 도입되었고, 용산에는 관영공장지대가 조성되었다(이태진, 2000: 307-386). 영은문이 있던 장소 옆에 독립문을 세우고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바꾸며 중국의 사신이 머무르던 시내의 남별궁을 없애고 그 자리에 원구단을 세웠다는 점, 그리고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조성이 경운궁의 보완과 도로의 개보수, 그리고 원구단의 조성 등과 함께 모두 1897년 10월 2일에 출범한 대한제국의 성립과 시기적으로 일치되고 있음은 이들 사업이 처음부터 대한제국의 성립과 연동되어 추진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일이라 하겠다.

## 2. 독립공원의 한계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비용이 부족하여 서재필의 원래 의도대로 공원의 조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조성비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날 발기인들이 모여 510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이래 전적으로 성금으로 충당되었다. 독립협회는 1897년 8월 26일까지 약 6,3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표 3 참조), 그 지출은 표 1에서와 같이 독립문 공사비로 2,300원, 독립공원 조성 및 외부 공간 정비 용도로 924원, 독립관 수리 및 내부시설비로 736원, 행사비로 556원, 독립협회 운영비로 1,187원을 지출하였다. 독립문 건설비는 3,825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중에서 2,300원을 선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부금을 독립공원 건설과 독립관 개수, 독립협회 운영 및 기타 행사비 등에 사용하여 독립문 건설비용마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독립신문」 광무 2년(1898) 1월 18일 잡보에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독립 협회에서 작년에 회원들이 의론 하고 대한 독립 혼것을 세계에 빛 내며 독립혼 표적을 후성들의게도 보히량으로 독립문을 이왕 영은문 셋던 즈리에 지여 대한에 데일 영광 되는 문을 근 일에 필역 하였는디 든 돈이 삼천 팔백 이십 오원이요 문 지흔 기사 심의석씨가 혈심으로 즈기의 돈을 근 천원 들여 그 문을 필역 하였시나 아즉도 협회에서 못 준 돈이 천여원이라 불가불 이 돈을 음력 세전으로 마감하여야 홀터인디 요전 일요일 회에 회원들이 의론 하고 회장과 부 회장이 보를 셔고 돈을 빚 내여 위선 공장들의게 진 돈을 치러 주고 그 돈은 독립 협회 회원들이 출렴 하여 석달 안으로 갑게 하였는디 그 회에 당장 돈 낸 사름들도 만히 잇시나 아즉도 구빅여원이 더 잇서야 위선 급흔 빚을 갑홀터이라 누구던지 대한 독립을 길겁게 녀이고 독립 협회에 모양이 흥치 안게 되기를 바라는이들은 독립 협회 스모쇼로 다쇼간 힘것 출렴 들 호야 이 빚을 갑게들 호기를 바라노라<sup>37)</sup>.

이런 맥락에서 1898년 1월 말부터 2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독립신문」 잡보에 추가금 모집을 호소하여<sup>38)</sup>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비용조달의 어려움은 공원의 조성에도 영향을 주어 독립공원은 그림 3의 모습을 갖추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조경공사를 수행할 인식이나 능력도 부족했다. 1896년 가을 이후 하천을 정비하고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 서울에서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 무렵의 토목, 건축 기술 수준은 높지 못했다. 1892년 봄부터 시작된 명동성당의 건축이 재료와 기술, 기술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6년이나 시간이 지난 1898년 5월말에서야 겨우 완공을 볼 수 있을 정도였으며, 조원이나 원예 방면에서는 일본식으로 정원을 꾸미는 타카하시란 일본인이 서울에 살며 독립신문에 광고를 낼 정도였다<sup>39)</sup>.

그리고 또 다른 한계로는 독립공원 부지가 너무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접근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독립문과 독립관, 그리고 독립공원이 사대 굴욕외교의 상징 공간인 영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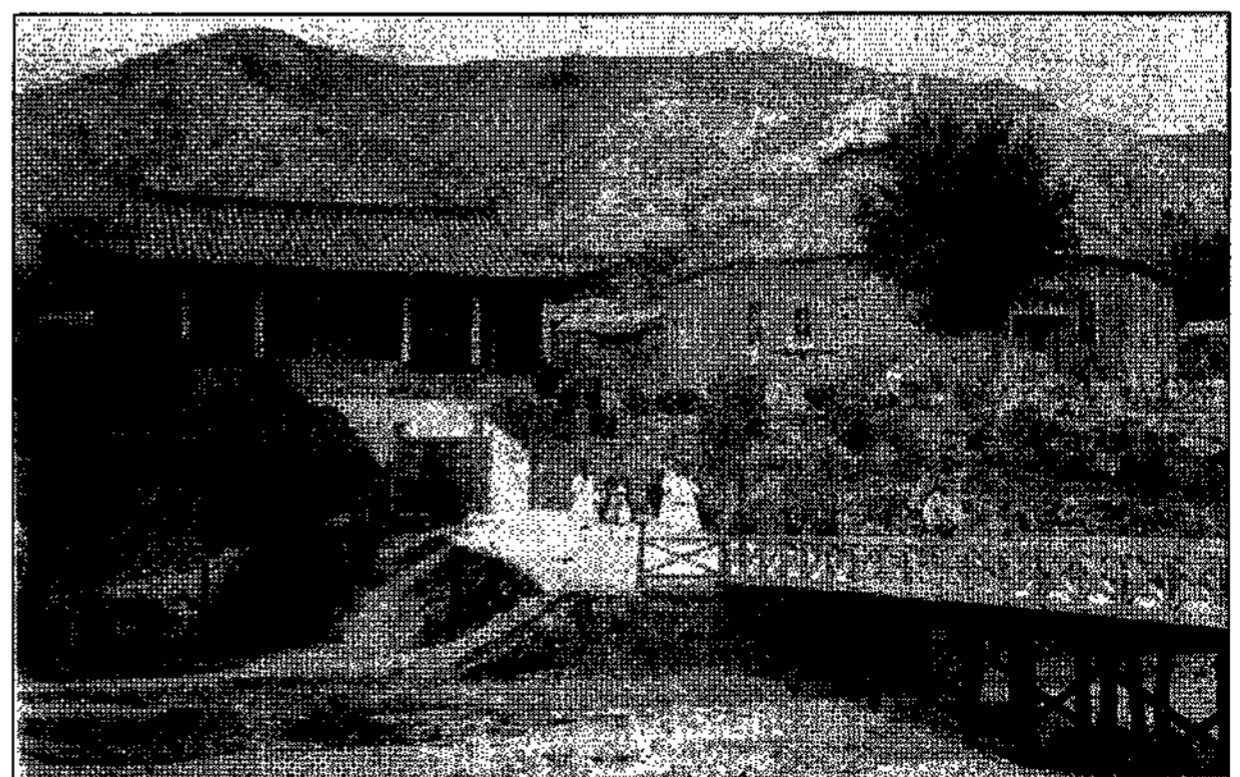


그림 4. 독립관과 일진회 건물

자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2: 113

과 모화관이 있던 곳을 선택해 이곳을 새롭게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있으나 성문 밖에 위치한 이곳은 상대적으로 도시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1897년 12월 초부터 및 1898년 2월 중순까지 열렸던 독립협회의 모임은 날씨가 너무 추워 먼 거리를 오기가 불편하다 하여 독립관에서 열리지 못하고 서대문 밖 옛 경기감영 자리인 한성부에서 열렸을 정도였다<sup>40)</sup>. 아울러 독립협회가 보다 정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1898년 11월에 개최한 만민공동회는 사람의 왕래가 더욱 빈번하고 민의의 전달이 효과적인 종로와 경운궁 인화문(남문) 앞에서 벌였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바이다. 1898년 12월 25일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 독립공원은 급격히 쇠락하였으며 시민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 대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은 경운궁 대안문(대한문) 앞, 광화문 네거리의 기념비전 앞, 시내의 탑골공원으로 대체되었다.

## V. 결론 및 고찰

독립공원은 사대 굴욕의 상징적 장소였던 모화관과 연주문이 있던 곳에 조선이 독립국임을 상징하고 국민들의 위생을 위하여 나라의 영광과 명예를 드높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외국의 사정을 잘 알며 애국심을 지닌 조선의 관리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실천조직으로서 독립협회를 구성하고 전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에 의해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독립공원의 조성에는 당시 중추원 고문관이자 독립신문 사장이던 서재필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배치와 기본계획 수립에 형식적으로는 '자문' 역할을 하였지만, 그는 독립문의 설계 및 건설감독과 함께 독립공원의 기본적인 모습을 그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재필이 구상한 독립공원은 독립문이라는 모뉴먼트(monument)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양한 수목들을 재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원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 운동과 휴식, 계몽과 집회를 위한 시설들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밖에 「The Independent」의 사설(editorial)에는 공원의 구체적인 모습과 함께 이 공원이 외국인들에게는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조선인들에게는 아름다움을 향유할 목적으로 조성된 심미적인 공간으로써 삶의 오아시스가 되게 하자는 제안도 이루어졌다.

조경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립공원은 서울 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자주적으로 시도된 최초의 근대 도시공원이자 계획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는 유일한 근대 공원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 초기 공원사를 구성하는 공원들, 그러니까 독립공원에 비해 일찍 조성된 인천의 각국공원이나 일본공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서울의 화성대공원, 그리고 나중에 조성된 탑골공원 등에서는 이런 맥락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공원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고

하겠다. 아울러 독립공원은 우리나라 공원조성의 역사를 일제에 의해 굴절되기 이전의 시간으로 끌고 올라감으로써 우리 근대 조경사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며, 당시에 오고갔던 담론들은 우리 근대 조경사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준다. 독립공원은 공원 조성의 기획에서부터 비용의 조달, 시공과 이용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공 공간이라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근대 도시 공원의 이상을 실천한 공간이었다. 또한, 독립공원은 사람들의 독립심과 근대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각성과 계몽,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대단히 주효한 목표이자 수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독립공원은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첫째는 서재필이 원래 의도했던 계획대로 실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주된 이유는 비용의 부족과 당시의 전반적인 조경기술의 수준이 서구의 도시 공원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여 접근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또한 지적된다. 특히 첫째 이유는 이로 인해 독립공원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립공원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머리속에 그리는 근대공원의 모습은 넓은 잔디밭과 그늘을 드리우는 아름드리 나무, 구불구불한 물길과 산책로가 있는 모습이 보통인데, 이러한 픽처레스크 풍의 목가적인 경관을 독립공원에서 찾는다면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공원을 공원지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독립공원 또한 처음에 '독립공원지'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초기의 우리 도시공원은 원(園)이기보다는 지(地)의 성격이 강했으며, 독립공원 또한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서구의 도시 공원과 같은 모습의 공간을 독립공원에서 찾는 것은 전형적인 타자의 시각으로 자아를 비취보는 것이라 하겠다. 다양한 형식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근대 공원의 모습을 서구식으로 전형화된 틀로써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의 또 다른 병폐라 판단된다.

독립공원은 제국주의의 음험한 그늘이 한반도를 드리우던 시절, 단단한 독립국가의 확립이라는 현실의 문제와 근대화라는 이상과 욕망이 갈등을 빚던 시절, 동도서기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기획하고 이루어낸 시대의 표상이자 근대 조경 역사의 이정표로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 시대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우리 근대 조경역사를 구성하는 여타 공원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들과 이채연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1. 스위스계 러시아 건축가로서 이바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진 사바친(Afanasij Ivanobich Seredin Sabatin)이란 긴 이름을 갖고 있다. 1860년 경 러시아에서 출생하였으며, 1885년부터 개항장 인천의

- 제물포 해관에 소속된 기사로 일했는데, '인천 제물포 각국조계장 정의 지도'(1884)도 그가 작성한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건축은 1885년에 준공한 러시아 공사관과 러시아 아치였으며, 손탁호텔 등을 설계했다(김정동 (1999) 근대 건축 기행. 푸른역사. pp. 94-98).
- 주 2. 인천문화재단 (2006) 만국공원의 기억. 인천문화재단. pp. 15-57. 한편, 강신용 등은 이 공원이 거류지회의 체제가 거의 정비된 1889년 초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강신용, 장윤환 (2004)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왕사. p. 62).
- 주 3. 독립공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작은 신용하의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의 건립과 변천>(감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2002,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373-400)이다.
- 주 4. 한국 근대 도시공원에 대한 연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신용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1995, 도서출판 조정)이다.
- 주 5. "조선 인민이 독립이라 호는거슬 모로논 썩돔에 외국 사롬들이 조선을 업수히 녀여도 분흔줄을 모로고 조선 대군주 폐하씨서 청국 남군의게 힘마다 스신을 보내서 칙령들 타 오시며 공문에 청국 년호를 쓰고 조선 인민은 청국에 속흔 사롬들노 알면서도 몇 퍽년을 원슈 갑홀 심각은 아니호고 속국 인체 호고 잇서스니 그 약흔 마음을 심각 하면 엇지 불상흔 인심들이 아니리오. ... 근일에 들으니 모화관에 이왕 연주문이 잇든 자리에다가 새로 문을 세우되 그문 일홈은 독립문이라 호고 새로 문을 그자리에다 세우는 뜻슨 세계 만국에 조선이 아조 독립국이란 표를 보이자는 뜻시오 이왕에 거긔 섰든 연주문은 조선스기에 데일 수치 되는 일인즉 그수치를 씨스리면 다만 그문만 허러 버릴썩이 아니라 새로 독립호는 주츄를 세우는거시니 우리가 듯기에 이러케 깃부고 경스로운 마음이 잇슬 때에야 흡올며 조선 신민들이야 오직 즐거오리요 늙의 나라에서들은 승전을 한다든지 국가에 큰 경스가 잇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늙흔 문을 짓는다든지 비를 세우는 풍속이라 그 문과 그비를 보고 인민이 즈긔 나라에 권리와 명예와 영광과 위엄을 심각 호고 더 튼튼히 길너 후성들이 이거슬 니져 버리지 안케 호자는 뜻시오 또 외국 사롬들의게도 그나라 인민의 인국 호는 마음을 보이자는 표라 만일 그 독립문이 필력이 되거드면 그날 조선 신민들이 외국 인민을 청 호야 독립문 압회서 크게 연설을 호고 세계에 조선이 독립국이요 조선 인민들도 즈긔들의 나라를 스랑 호고 대군주 폐하를 위 호야 죽을 일이 잇스면 죽기를 두려워 아니 호는거슬 세계에 광고 흡이 조홀 듯 호더라"(『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6월 20일, 논설): "오늘 우리는 임금께서 서대문 밖 (연주)문이 쓰러진 자리에 독립문이라 부르게 될 새로운 문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뻐한다. Today we rejoice in the facts that the King has decided to erect upon the ruins of the arch outside the West Gate, a new one to be entitled Independence Arch. 독립문."(『The Independent』, vol. 1 no. 33, June 20 1896, "Editorial").
- 주 6. 연주문은 영은문(迎恩門)이라고도 하는데, 모화관과 함께 중국 사대주의의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중국의 사신은 영은문을 지나 모화관에서 조선의 왕이 영접하러 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이들이 돌아갈 때에 왕은 영은문까지 나와 환송을 하였다 한다. 청일전쟁 이후 들어선 갑오개혁 내각은 이 문을 사대 굴욕외교의 상징이라 하여 1895년 2월 철거해 버렸다.
- 주 7. 초기에 공원은 '공원지(公園地)' 혹은 '화원(花園)'이란 말과 함께 사용되었다. 공원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며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원이란 단어는 휴식과 관광을 위한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공간의 의미를 주는 반면 공원지란 말은 유락적 기능보다는 사회적 의미가 보다 강조되는 공공 공지의 의미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 주 8.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7월 2일, 논설: 『The Independent』, vol. 1, no. 38, July 2 1896, "Editorial", "Brief Notice".
- 주 9.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7월 2일, 논설.
- 주 10. 『The Independent』, Vol. 1 No. 38, July 2 1896, Brief Notice.
- 주 11. 7월 2일자 독립신문에는 회의가 중추원(The Privy Council)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7월 4일자 신문에는 외부(The Foreign Office)에서 열렸다고 했다. 정황으로 보아 이날 두 군데서 회의가 열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7월 2일의 기사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보도된 것이고 7월 4일의 기사는 회의가 열린 후에 보도된 것이므로 후자의 장소가 정확하리라 판단된다.
- 주 12. 안경수 40원, 이완용 100원, 김가진 10원, 이윤용 100원, 김종한 30원, 권재형 30원, 독립신문사 30원, 고영희 20원, 이채연 20원, 현홍택 50원, 이상재 10원, 김각현 10원, 이근호 20원, 남궁익 10원, 조성협 10원 등이다. 그러나 이 돈의 합은 490원인데 독립신문에서는 510원이 걸렸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 자리에는 이들 외에도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주 13.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7월 4일, 논설.
- 주 14. "팔월 삼십일일 중추원 의관 안경수씨와 군부 대신 리윤용씨와 협판 민영기씨와 농상 협판 리치연씨와 법무 협판 권지형씨가 독립문 모든 간스원과 장공들을 다리고 새문 밧 모화관에 나가서 독립문 세울 터와 독립 공원디 문들 싸와 독립관 건축 할 곳을 보고..."(『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9월 3일, 잡보). 한편, 독립관이란 말은 이날의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
- 주 15. "새문밧 모화관에 독립관은 밧서 시작호야 건축 호거니와 독립문은 이달 십륙일부터 시작 호다더라"(『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9월 15일, 잡보).
- 주 16.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11월 21일, 잡보: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11월 24일.
- 주 17. 『독립신문』, 건양 2년(1897) 4월 8일, 각부 신문.
- 주 18. "이들 이십 슨일 오후에 독립 협회 회원들이 독립관에 모혀 독립관 현판을 다랐는디 이현판은 왕태즈 던하에 친필이라 회원들이 길겁게 이 현판을 관문 합해 달고 경축호 말 들을 호며 작정 호기를 매일 요일 오후 삼시에 회원들이 독립관에 모혀 문건과 학문에 유조호 말들을 강론 호다더라"(『독립신문』, 건양 2년(1897) 5월 25일, 잡보).
- 주 19. "Dr. Philip Jaisohn will act as adviser in the arrangements and general plan of the park."(『The Independent』, vol. 1, no. 39, July 4, 1896, Brief Notice).
- 주 20. "At the request of club our honored contemporary on <The Independent>, Dr. Philip Jaisohn, has designed and superintended the erection of this monument"(『The Korean Repository』, vol. 4, no. 11, 1897년 11월호, Editorial Department). 서재필은 당시 서울에 살던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Sabatini)의 도움으로 독립문의 설계도를 만들었으며 건축은 독립문 건립을 위한 첫 모임에 참석하여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심의석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다("Dr. Jaisohn was requested to draw the design for the arch which he did with the assistance of Mr. Sabatin, a Russian architect then living in Seoul."(『The Korean Repository』, Vol. 5 No. 8&9, Aug. & Sep. 1898.)) 한편 김도태가 저술한 <서재필박사 자서전>에는 당시 독일 공사관에 근무하는 스위스인에게 부탁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심모란 서양식 건축을 하던 목수를 통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서 독립문을 완공하였다고 되어 있는데(김도태 편(1948) 서재필박사 자서전. 수선사. p. 203). 이것은 착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독립문이 조성되고 50여년이 지난 시점에 서재필의 구술을 바탕으로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군데 문제점이 눈에 띄는데, 예를 들면 1895년 2월 철거한 영은문을 1896년 1월 귀국한 서재필이 보고 없애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한 것이나, 독립문의 조성경비 전액을 서재필이 출자하였다는 점 등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립문 설계를 도와준 인물 역시 독일 공사관에 근무하는 스위스 인이기 보다는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라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주 21. "Dr. Jaisohn, ... suggested to the cabinet ... the advisability of establishing a public park near the city for experimenting in the cultivation of fruit trees, forestry, flowering plants and various foreign shrubs. A part of the park to be reserved for out-door games such as tennis, foot-ball, cricket, baseball, etc., a part for the us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may get fresh air exercise after their official duties are over. He further

suggested that a part of the park be reserved for the public, where all classes can come and sit down once or twice a week and listen to instructive lectures or addresses on timely subjects”(『The Korean Repository』, Vol. 5 No. 8&9, Aug. & Sep. 1898).

- 주 22. 1896년 9월 24일자 『The Independent』에는 군악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며 “새로 조성하게 될 독립공원에 만약 훌륭한 군악대가 일주일에 두세 차례 오후에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면 이 공원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미루어 볼 때 공원 안에 군악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은 처음부터 의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The Independent』, Vol. 1 No. 74, September 24, 1896, Editorial).
- 주 23. 『The Independent』, Vol. 1 No. 38, July 2, 1896, Editorial.
- 주 24. “Owing to the lack of funds the scheme of making a park has been abandoned for the present. ...”(『The Korean Repository』, Vol. 5 No. 8&9, Aug. & Sep. 1898).
- 주 25.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6. 第1號. 獨立協會規則.
- 주 26. 이런 점은 『大朝鮮獨立協會會報』의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 茲에公共로議로獨立協會를勃起호야前迎恩門遺址에獨立門을新建호고前慕華館을脩改호야獨立館이라호야舊日의恥辱을洗호고後人の標準을作코져호미오其附近地를曠棄치못호으로仍호야獨立公園을順便設호야써 其門과館을保管코져호오니...”(『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6. 第1號. 獨立協會輪告).
- 주 27. 독립협회의 초기 구성은 회장 안경수, 부회장 이완용, 위원 김가진, 김종한, 민상호, 이채연, 권재형, 현홍택, 이상재, 이근호, 이재정, 유기환, 박기양, 김승규 등이었으며, 간사원은 송헌빈, 이진호, 남궁억, 심의석, 정현철, 팽한주, 오세창, 이근영, 현제복, 문태원, 이계필, 구연소, 박승조, 박용규, 홍우관, 안영수, 서창보, 이종하 등이었다(『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6. 第1號. 獨立協會輪告).
- 주 28. 1896년 1년 동안 영문판의 논설은 총 124편이고 그중에서 43편이 한글판과 같은 내용이었는데(김유원 (1992) 영문판 독립신문의 논조에 관한 연구: 논설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9, 162(채백 (2006) p.93.에서 재인용)), 7월 2일자 『The Independent』의 기사는 한글판에는 없고 영문판에만 있는 기사이다.
- 주 29.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7월 2일, 논설.
- 주 30.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7월 21일, 잡보. ;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7월 23일, 잡보.
- 주 31.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7월 16일, 잡보. ;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7월 23일, 잡보. ;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8월 1일, 잡보. ;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8월 20일, 잡보. ;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9월 8일, 잡보. ; 『독립신문』, 건양 원

- 년(1896) 9월 15일, 잡보. ;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9월 17일, 잡보.
- 주 32.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11월 21일, 잡보. ;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11월 24일.
- 주 33.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11월 24일.
- 주 34. 『독립신문』, 건양 2년(1897) 8월 14일, 논설. ; 8월 17일, 논설, 잡보. ; 8월 19일.
- 주 35.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8월 11일, 논설.
- 주 36. 초대 주미공사였던 박정양을 따라 미국을 다녀왔다.
- 주 37. 『독립신문』, 광무 2년(1898) 1월 18일, 잡보.
- 주 38. 『독립신문』, 광무 2년(1898) 1월 27일, 1월 29일, 2월 1일, 2월 3일, 2월 5일, 2월 8일, 2월 10일, 2월 12일, 2월 15일, 2월 17일, 2월 19일, 2월 22일, 2월 24일, 잡보.
- 주 39. 『독립신문』, 건양 원년(1896) 12월 12일, 12월 15일, 12월 17일, 12월 19일 식목광고. ; 한편 1922년에 설립되어 인천 용강정을 중심으로 정원설계 및 조성을 전문으로 했던 화왕원(華王園)이란 회사가 있었음이 조사된다.
- 주 40. 『독립신문』, 광무 원년(1897) 12월 4일, 12월11일, 12월 18일, 12월 23일, 12월 30일 잡보. ; 『독립신문』, 광무 2년(1898) 1월 8일, 1월 15일, 1월 22일, 1월 29일, 2월 5일, 2월12일. 잡보.

### 인용문헌

1. 강신용(1995)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도서출판 조경.
2. 김도태(1948) 서재필박사 자서전. 수선사.
3. 김원국 외 저, 서경석, 김진량(2005) 식민지 지식인의 개화 세상 유학기. 태학사.
4. 김정동(1999) 근대 건축 기행. 푸른역사.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2) 사진으로 보는 서울 1 - 개항 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
6. 신용하(2002)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7. 이태진(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8. 인천문화재단(2006) 만국공원의 기억. 인천문화재단.
9. 채백(2006) 독립신문 연구. 도서출판 한나래.
10. 한국학문헌연구소(1978) 大朝鮮獨立協會會報. 한국개화기학술지 12. 서울아세아문화사, 1978.
11. LG문화재단(1996) 獨立新聞.
12. The Korean Repository, 1897, 1월호.
13. <http://search.i815.or.kr/Main/Main.jsp>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14. <http://www.e-coreana.or.kr/index.jsp>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15. <http://www.kinds.or.kr/main/search/gonewssearch.php> (한국언론재단 고신문 검색)
16.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원 고 접 수: 2008년 1월 18일  
 최종 수정본 접수: 2008년 3월 22일  
 3 인 의 명 심 사 필